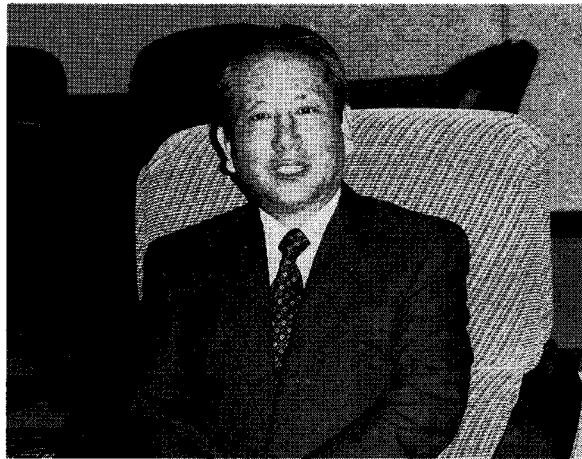


## 육상·해운·철도를 섭렵한 종합물류인 사기업 목소리 대변하는 연구원으로 자리할터

최 훈 / 한진그룹교통물류연구원 원장



▲ 한진그룹교통물류연구원 최훈 원장

**“한진** 교통물류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종합물류그룹으로서 ‘가격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라는 인식하에 물류난에 봉착해 있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룹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공물류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는데 있습니다.”

지난 해에 한진그룹교통물류연구원을 맡은 최원장은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자적인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간 배워오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물류혁신에 경주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 물류주무부서로부터 5~6개의 과제를 수탁받아 더욱 바쁜 모습을 보였다.

물류의 저변확대를 위해 물류스쿨을 1년에 12

회를 마련한 한진그룹교통물류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물류환경에 대한 이해와 한계성 극복, 전 분야별 물류사례발표, 국내 연구원들의 세미나와 국제물류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작년에 한진그룹 창사 50주년을 기념하며 ‘제1회 한·중·일 국제물류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올해에는 한진그룹교통물류연구원이 주최가 돼 선진 구라파를 초청,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에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사기업들의 목소리를 공공물류에 대변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최원장은 “사기업 연구원과 공공물류연구원은 서로 공존하는 체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사기업과 공공물류연

**“국민들의 생활이 부유해지면 빠른 시간과 공간의 이동 필요……  
스피드의 문제, 신기술도입의 문제, 새로운 산업의 시너지 효과 문제와 결부,  
선진국형 SOC투자는 GNP 대비 3~4%는 되어야……”**

구원의 역할을 나눈다면 공공연구기관은 거시적인 물류접근을 해야 하며, 사기업연구원에서는 미시적인 접근, 즉 기업의 생태와 기업의 needs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종 법률이 화물유통에 저해하는 것은 없는가? 행정규제 등의 불필요한 절차는 없는가라는 문제의식과 기업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SOC(사회간접자본)와 물류기법과 마인드화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의 차이겠지요 결국 이런 물음은 같은 맥락에서 풀어 가야 하거든요”

사기업과 공공물류연구원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최 원장은 연구원들이 자칫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여 종합적인 메카니즘으로 교통물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종합물류인이다.

80년대 당시 울산항만청을 이끌어 오면서 불필요한 법안을 정리해 항만의 운송질서를 확립했고, 처음으로 관제탑을 만들어 선박의 입·출항시 복잡한 서류절차를 없앴다. 91년에 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화물의 흐름을 원활케 하기 위한 화물유통촉진법을 입안해 국회에 통과시켰다. 또한 육상교통국장시절은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보냈고, 93년도에 철도운송의 총책임자인 철도청장을 지냈다.

이제는 한진그룹교통물류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물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이 부유해지면 그에 따른 빠른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바로 스피드의 문제, 신기술의 도입문제, 새로운 산업

의 시너지 효과 문제와 결부됩니다. 즉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문에 있어 94~95년에 SOC 투자는 6조2천억원이었습니다. GNP의 1.9%입니다. 물류의 선진국형은 3~4%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부산항과 인천항의 연안해안에 컨테이너운송의 전용부두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둘째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연안컨테이너 운송)과 도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빈 컨테이너의 회차비율을 줄이는데 계획하고 통제해 주는 정부이어야 한다고 최 원장은 강조한다.

그간에 비쳐진 정부의 상황논리나 정치논리에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모습은 물류환경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인 최 원장은 공공물류에 30여년간 생활해 오면서 정책의 실체와 허구성의 문제에 남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순순한 사기업에서 연구원의 형태를 지속시키며 교통과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으로 위치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그는 끝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추구하는 현실과 이상이 잘 조화된 상태에서 물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숙한 접목이 이룩되면 물류는 진정한 제2의 경영합리화로서 그 의미가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변준섭 기자